

국제유가, 12월부터 또다시 상승

KIEP, 난방용 원유 수요 증가로 ... 4/4분기 두바이유 125달러 전망

최근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12월부터 재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은 8월8일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7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다가 12월경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월 재상승의 근거로 난방용 원유 수요 증가를 들었다.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8월 배럴당 129달러를 기록한 후 3/4분기 129달러, 4/4분기 125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석유 수요 감소 전망, 달러화 가치 동향, 계절적·지정학적 문제의 안정화, 선물시장의 투기자본 감소 등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하락은 지속되겠지만 1-2가지 변수에만 이상이 생겨도 국제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높은 수준의 국제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가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각국 정책금리는 하반기 경기둔화 지속, 신용경색의 재부각,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8>